

국 어

문 1. 밑줄 친 부분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는 주인이 내온 저녁상에 입이 벌어졌다. (매우 놀라다)
- ② 이 가게에는 그녀의 눈에 차는 물건이 없는 것 같다. (마음에 들다)
- ③ 그녀는 손이 재기로 유명해서 잔치마다 불려 다닌다. (일 처리가 빠르다)
- ④ 나는 동생이 혼자 그 많은 일을 다 해서 혀를 내둘렀다. (안쓰러워하다)

문 2. ‘사다’의 활용형이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친구한테 쌈값으로 책을 ().
- ② 그는 승진 턱을 () 모두에게 저녁을 대접했다.
- ③ 나는 위험한 짓을 () 하려는 그에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 ④ 기성 권위에 대한 참신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그의 행동을 높이 () 싶다.

문 3.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는 것은?

- | | |
|--------------------|--------------------|
| ① leadership – 리더십 | ② concept – 콘셉트 |
| ③ workshop – 워크숍 | ④ accessory – 액세사리 |

문 4. 밑줄 친 말과 관련된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는 사정도 들어 보기 전에 딱 잘라서 내 부탁을 거절하였다.

- ① 명명백백(明明白白)
- ② 일언지하(一言之下)
- ③ 지호지간(指呼之間)
- ④ 청천벽력(青天霹靂)

문 5.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한글 창제의 정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世·생·宗·종·御·ingga·制·정·訓·훈·民·민·正·정·音·음·흠

나·랏·말·쓰·미 中·둘·國·국·에 달·아 文·문·字·쭝·와·로 서·르 스·못·디 아·니·흘·썩 ·이·린
 전·츠·로 어·린 百·릭·姓·성·이 니·르·고·져 ·흙 ·배 이·셔·도 모·촘·내 제 ·쁘·들
 시·러 폐·디 :몰·흙 ·노·미 하·니·라 ·내 ·이·률 爲·윙·흐·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 여·듦 字·쭝·률 링·그·노·니 :사·름·마·다 :흐·여 :수·빙·니·겨 ·날·로 ·뿌·메
 便·뻔·安·한·크 흐·고·져 흙 쓰·르·미·니·라

- ① 애민 정신
- ② 자주 정신
- ③ 실용 정신
- ④ 창조 정신

문 6.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곳은?

세균 오염으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기농 농법으로 키운 작물보다 유전자 변형 식품이 더 안전할 수 있다. 사람들은 식품에 ‘자연산’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무조건 안전하려니 믿는 경향이 있다. (①) 특히 유기농 식품이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②) 하지만 유기농 식품이 더 위험할 수 있다. (③) 이렇게 보면 자연식품이 안전하고 더 몸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일 가능성이 많다. (④) 자연 또는 천연이라는 말이 반드시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문 7. 언어 예절로 옳은 것은?

- ① (학생이 선생님에게) 저희 아버지는 3층에 볼일이 계세요.
- ② (판매원이 손님에게) 손님, 주문하신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 ③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그 넥타이 정말 멋지시네요.
- ④ (어머니가 이웃 사람에게) 우리 딸은 모르는 건 꼭 저에게 여쭤 봐요.

문 8. 다음 의견에 대한 반대 측의 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터넷 신조어를 국어사전에 당연히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의 역할은 모르는 말이 나올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습’, ‘멘붕’ 같은 말은 널리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사전에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나 우리말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① ‘멘붕’이나 ‘안습’ 같은 신조어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급격한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정보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라면 표준어로 인정해야 한다.
- ② 영국의 권위 있는 사전인 ‘옥스퍼드 영어 대사전’은 최근 인터넷 용어로 쓰이던 ‘OMG(어머나)’, ‘LOL(크게 웃다)’ 등과 같은 말을 정식 단어로 인정하였다.
- ③ 언어의 창조성 측면에서 우리말이 현재보다 더욱 풍부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더 많은 말을 사전에 등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멘붕’이나 ‘안습’ 같은 말들은 갑자기 생긴 말로 오랜 시간 언중 사이에서 사용되지 않고 한때 유행하다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말이다.

문 9.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벗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터(大平盛代)

날리는 엇디 살라 흐고
벗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터(大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느는
선흐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터(大平盛代)

셜온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터(大平盛代)

– 작자 미상, 「가시리」 –

- ① 후렴구의 삽입으로 연을 구분하고 있다.
- ② 4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
- ③ ‘이별의 안타까움 – 소망 – 체념 – 용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④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문 10.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국 열대 지역이 원산지인 꽃매미가 우리나라에 토착화되었다는 건 이미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기후에 들어섰다는 걸 방증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2006년 이후 꽃매미를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꽃매미는 1932년에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다고 어느 일본인 곤충 학자는 기록했다. 그렇다면 1932년부터 2005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2006년부터 문제가 된 걸까?

2006년 이전까지 () 그러나 2006년에 서울에 유입된 꽃매미는 서울이 살기 적합한 기후로 변했다는 걸 감지했고, 알의 상태로 월동하고 봄에 태어나는 토종 곤충 행세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래 유입 종은 자연계에 천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훨씬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

- ① 꽃매미는 우리나라에서 알의 상태로 있었다.
- ② 꽃매미는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하지 못했다.
- ③ 꽃매미는 천적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살지 못했다.
- ④ 꽃매미는 토종 곤충에 밀려 우리나라에 적응하지 못했다.

문 11. 괄호 안에 들어갈 접속어로 적절한 것은?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상대방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는 것도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찾아가서 사과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 ① 따라서 ② 그러나 ③ 그러므로 ④ 그렇기에

문 12.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우리가 기술을 만들지만, 기술은 우리 경험과 인간관계 및 사회적 권력관계를 바꿈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 어떤 기술은 인간 사회를 더 민주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지만, 어떤 기술은 독재자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라디오는 누가, 어떻게, 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낳는다. 그렇지만 핵무기처럼 아무리 민주적으로 사용하고 싶어도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기술도 있다. 인간은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이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기술에는 꼼짝달싹 못하게 예속되어 버린다.

기술은 새로운 가능성은 열어 주지만, 기존의 가능성 중 일부를 소멸시킨다. 따라서 이렇게 도입된 기술은 우리를 둘러싼 기술 환경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사회 세력들과 조직들 사이의 역학 관계를 바꾼다. 새로운 기술 때문에 더 힘을 가지게 된 그룹과 힘을 잃게 된 그룹이 생기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 구조의 변화가 수반된다.

기술 중에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통제하는 기술도 있지만, 대규모 기술 시스템은 한두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 ‘기술은 언제나 사람에게 진다.’라고 계속해서 믿다가는 기술의 지배와 통제를 벗어나기 힘들다. 기술에 대한 철학과 사상이, 그것도 비판적이면서 균형 잡힌 철학과 사상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 ①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없도록 기술을 관리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② 기술은 인간관계 및 사회적 권력관계를 바꿈으로써 인간 사회의 진보를 가능케 한다.
- ③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기술 발전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 ④ 기술은 양면성을 지니므로 사회 구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철학과 사상이 필요하다.

문 13. ‘입술소리(양순음)’로만 뚫인 것은?

- ① ㄱ, ㄲ, ㅋ, ㆁ ② ㄷ, ㄸ, ㅌ, ㄴ
- ③ ㅁ, ㅂ, ㅃ, ㅍ ④ ㅅ, ㅆ, ㅈ, ㅉ

문 14. 밑줄 친 말 중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 ① 집은 허름하지만 아까 본 집보다 가격이 만만찮다.
- ② 그는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밥상을 물렸다.
- ③ 청소한 것 치고는 그다지 깨끗지 않았다.
- ④ 넉넉지 못했지만 학교 다니고 생활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문 15.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촉구하는 표어를 작성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 스마트폰의 역기능을 비유를 통해 언급할 것
- 대구와 대조의 방법을 사용할 것

- ① 스마트폰은 당신 인생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한 인생, 이제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 ② 스마트폰 중독은 여러분 인생에 절망의 늪이 됩니다
스마트폰 해방은 여러분 인생에 희망의 샘이 됩니다
- ③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당신, 인생에 출구는 없습니다
미래의 스마트한 삶은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으로부터
- ④ 현재의 스마트한 삶을 스마트폰에서 찾은 당신
미래의 스마트한 삶도 스마트폰에서 찾을 당신

문 16. 고유어인 것은?

- ① 얼굴
- ② 고생
- ③ 사탕
- ④ 포도

문 17. 다음 글에 언급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막화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전 세계가 공유해야만 한다. 유엔의 조사 결과, 이대로 가면 지구 육지 면적의 3분의 1이 사막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막화란 건조 지대에서 일어나는 토지 황폐화 현상으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지구 환경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 과도한 경작으로 땅을 혹사시키거나 무분별한 벌목으로 삼림을 파괴하는 인간의 잘못된 활동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사막화는 많은 나라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다. 그중 특히 심각한 곳은 아프리카이고 중동이나 호주, 중국도 심각한 수준이다.

사막화의 피해는 눈에 띌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선 생산력을 잃은 토지에서 식물이 자랄 수 없게 되고 농경이 불가능해진다. 이것은 식량 생산의 감소를 의미한다. 또한 식수가 부족하게 될 것이다. 최근 중동 지역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닷물을 담수화 과정을 거쳐 식수로 만들고 있다.

- ① 사막화를 막는 방안
- ② 사막화가 심한 지역
- ③ 사막화 진행 이유
- ④ 사막화의 정의

문 18. 다음 글의 진술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문명은 대개 물질적인 성과와 관련된 사항을 거론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반면에 문화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이나 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성과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 ① 대조 ② 분류 ③ 예시 ④ 유추

문 19. 밑줄 친 말이 옳게 쓰인 것은?

- ① 세계를 다 둘러보아도 우리나라의 산수갑산 같은 오지는 많지 않다.
 ② 조부님은 한국전쟁 중에 홀홀단신으로 월남하여 서울에 정착하셨다.
 ③ 그들과 마주한 순간 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몰린 것처럼 체념하고 말았다.
 ④ 사람이 환골탈태한다고 하지만 그가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놀라웠다.

문 20. 다음 글에 나타난 양반의 모습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양반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글만 읽으면 선비라 하고, 정치에 종사하면 대부라 하며, 착한 덕이 있으면 군자라고 한다. 무관의 계급은 서쪽에 벌여 있고, 문관의 차례는 동쪽에 자리 잡았으며, 이들을 통틀어 양반이라고 한다.

… (중략) …

손에는 돈을 지니지 말아야 하며, 쌀값을 묻지도 말아야 한다. 날씨가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며, 밥을 먹을 때에도 맨상투 꿀로 앓지 말아야 한다. 식사하면서 국물부터 마시지 말며, 설령 마시더라도 훌쩍거리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 젓가락을 내릴 때에는 밥상을 짚어 소리 내지 말며, 생파를 씹지 말아야 한다. 술을 마신 뒤에는 수염을 빨지 말며, 담배를 태울 때에는 볼이 오목 파이도록 빨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아내를 치지 말며, 화가 나더라도 그릇을 차지 말아야 한다. 맨주먹으로 아녀자들을 때리지 말며, 종들이 잘못 하더라도 때려서 죽이지는 말아야 한다. 소와 말을 꾸짖으면서 팔아먹은 주인을 욕하지 말아야 한다. 병이 들어도 무당을 부르지 말고, 제사하면서 중을 불러다 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화롯가에 손을 쪘지 말며, 말할 때에 침이 튀지 말아야 한다. 소를 도살하지 말며, 돈으로 노름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박지원, 「양반전」 —

- ① 양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군.
 ② 양반들은 행동을 규정하는 형식적 예법에 얹매여 있군.
 ③ 양반들은 글 읽는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로군.
 ④ 양반들은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있군.